

혼즈밀에서 아만다 스미스의 이야기



1838년 10월 30일, 미주리주의 폭도들은 혼즈밀로 알려진 후기 성도 정착지를 공격했다. 폭도들은 피난처를 찾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대장간으로 들어간 남자와 소년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 공격으로 17명의 후기 성도가 사망했으며, 12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여섯 살 난 엘마 스미스도 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엘마 스미스는 총상으로 엉덩이 관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 엘마의 어머니인 아만다 반스 스미스는 엘마를 발견했을 때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또한 이번 습격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과 10살 된 아들을 애도했다.

아만다는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었기에 남은 자녀들을 한데 모아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상처 입은 제 불쌍한 아들을 보고 계시며 저의 미숙함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십시오.”

기도를 마쳤을 때 아만다는 재를 풀어 물과 섞으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 잣물을 사용하여 엘마의 상처가 깨끗해질 때까지 상처를 씻었다. 그런 다음 아만다는 느릅나무에서 뿌리를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엘마의 상처에 그것을 붙이고 아마천으로 덮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대로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렴. 주님께서 네 엉덩이를 낫게 해 주실 거야.”

엘마의 부상 때문에 아만다와 그녀의 가족은 습격 이후 대피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난 후, 폭도들은 그녀와 나머지 성도들이 떠날 기한을 정했다. 기한이 다가오자 아만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옥수숫대 터미 속에 몸을 숨겼다. 그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는 음성을 들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굳도다 그 기초”(『찬송가』, 35장)에 나오는 이 가사는 아만다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얼마 후, 바깥에 있던 아만다는 집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집에 달려가 보니, 엘마가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엄마, 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요!” 엘마가 소리쳤다. 아만다와 자녀들은 곧 혼즈밀을 떠났다.

(『성도들』, 제1권 347~350, 353~355, 378~379쪽에서 인용 및 요약)